

“시가 되는 비밀을 깨달아 글 쓰는 묘미에 푹 빠졌어요”

광주문인협회 ‘시 창작 교실’ 회원 60여명 참여 뜨거운 관심 해남 출신 이지엽 시인 강의



이지엽 시인

“시가 되는 비밀을 깨달아 글 쓰는 묘미에 푹 빠졌어요. 특히 이지엽 선생님의 넉넉한 웃음 속에서 진행되는 시 이론과 시 창작 지도는 실제 창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광주문인협회(회장 이근모)에서 개설한 시 창작 교실 강의를 듣고 있는 시낭송가 홍영숙 시인은 강의가 진행되는 매주 화요일이면 대학 캠퍼스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2022년 ‘시와사람’을 통해 등단해 공무원연금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시인은 길라잡이가 되도록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지엽 시인의 지도에 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광주문인협회가 오는 6월 중순까지 열고 있는 시창작 교실에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창작의 열기가 뜨겁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주 2시간씩 진행된다.

강의를 들으며 노트에 빼곡하게 내용을 적어가는 수강생들은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모습을 닮았다. 마음 속 깊이 드리워져 있던 시심(詩心)이 마치 불씨처럼 일어나 잔잔하게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언급한대로 강사는 해남 출신 이지엽 시인. 경기대 교수이기도 한 이지엽 시인은 광주를 찾아 노(老) 시인들과 시인 지망생들을 만난다. 광주 예총 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시 창작 교실은 이미 등단한 시인을 비롯해 타 장르 등단 작가 그리고 시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자 하는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지엽 시인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를 못지않다. 시를 쓰는 데 있



광주문협이 개설한 시창작 교실에서 회원들이 이지엽 시인의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문협 제공>

어 나이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인생을 살아온 만큼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깊이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이 시인의 저서 ‘현대시 창작 강의’를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시의 운율, 운율의 가능, 시적 대상, 시적 표현, 아이러니, 이미지, 비유, 상징 등 주요 소재를 수강생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친다.

현재 이 시인은 대학 정년을 1년여 남겨두고 있지만 일주일에 3-4일을 진도에 머물고 있다. 진도에 ‘시에그린 한국사회박물관’과 ‘여귀산 미술관’, ‘진도 수석박물관’을 열었는데 현재 각각의 공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

그동안 ‘열린시학’, ‘시조시학’, ‘한국동시조’ 등 3개의 문예지를 만들고 이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예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그였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시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기에는 고향 남도의 문화, 문학의 확장과 의미있는 콘텐츠 생산을 견인하는 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올 3월에는 문학 집필공간인 ‘시에그린 문학의 집’까지 개관해, 현재는 10여명 안팎의 작가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창작을 하고 있다. 이 시인은 향

후 명실상부한 창작의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탄탄히 다진다는 복안이다.

이 시인은 “이번 시창작 교실은 여러 여건상 강의가 불가능했지만 한국의 문학에서 호남의 문학적 위상도 고려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며 “전반적으로 시에 대한 감성이 좋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의 이후에도 시를 매개로 소통이 이어진다. 인터넷 열린 창작교실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수강생들이 스스로 창작할 수 있도록 한 것.

강의를 듣고 있는 김형순 시인은 “뜻이 있고 혼을 담은 저서와 컴퓨터를 접목해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지적해주며 성심껏 지도해주는 교수님을 통해 시를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뻔한 글은 탈피하라’는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되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근모 광주문인협회 회장은 “이번 시창작 교실은 회원 간 소통과 정서 공유, 창작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는 더 많은 회원들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독립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선정

김희정 감독 등 16명 참여 김애란 단편소설 각색·연출

광주영화인들이 참여한 독립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에 선정됐다.

광주독립영화협회(오태승 대표)는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에 참여한 광주 영화인들은 김희정 감독을 비롯해 총 16명이다.

이번 작품은 소설가 김애란 작가의 동명 단편소설을 영화로 각색 및 연출한 작품이다. 폴란드와 광주 선운지구, 518 민주광장, 광주전원 등에서 촬영을 진행한 작품의 제작진으로 광주 영화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세진(프로듀서), 허지은(조감독), 백종득·김대현(제작실장), 유명상(현장편집, 데이터매니저), 김신혜(스크립터), 송한울(제작부), 송승은(연출부), 신현준(제작지원), 김진우(제작지원), 고유단(연출지원), 오설균(배우), 장도국(배우), 박선주(배우), 추말숙(배우)이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번 영화에 참여한 광주 영화인들은 광주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창작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영화인들이다. 광주내외에서 단편영화 감독과 제작, 연기활동 및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로 활동해온 이력의 소유자들이 광주 영화인의 핵심 영화인들이다.

한편 배우 박하선이 주연을 맡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떠난 ‘명지’ (박하선)가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이다.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 사고 앞에 망자를 애도하는 동시에 남은 사람을 구하는 길은 무엇인지 깊은 고심을 담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크레센도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

29일 해동문화예술촌 마당

‘탱고의 매력에 빠지다’

담양의 오래된 주조장을 개조한 해동문화예술촌은 매주 마지막 주 다양한 기획으로 구성된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담양 크레센도 DY Crescendo’를 개최하고 있다.

이중 인기 있는 공연프로그램인 ‘양코르 해동’ 4월 공연이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열린다. ‘양코르 해동’의 두 번째 공연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가 오는 29일 오후 4시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에 나서는 팀은 반도네온 김국주 밴드다. 반도네온은 1800년경 독일 교회에서 오르간 대용으로 만들어진 악기로 현재

는 탱고 음악의 핵심 악기로 사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음악을 주로 공연하는 그룹으로 피아노 김창현, 바이올린 김수원, 콘트라베이스 광다미, 반도네온 김국주 씨가 출연하며 트렌디한 탱고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의 매력과 함께 일본과 한국의 탱고음악, 그리고 지금의 반도네온 연주자 김국주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더한 연주로 가득 채워진다. 약 17곡의 다양한 곡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각각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

무료 관람. (재)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와 해동문화예술촌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국주

‘서른 살:광주시립미술관 1992-2022’ 발간

30년 역사 오롯이...국공립 미술관·도서관 등에 배포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년을 기념하여 미술관 30년의 역사를 한권으로 집대성해 발간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시립미술관 30년사 자료집 ‘서른 살: 광주시립미술관 1992-2022’에 1992년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주의 시각문화는 물론 한국미술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를 추동해 온 광주시립미술관 30년 역사를 담았다.

이 자료집은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세계 속에 현대미술 변화에 맞추어 성장해왔던 광주시립미술관의 3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미술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총칭 ‘30년, 기억의 갈피’를 시작으로 ‘소장작품 30년’, ‘전시 30년’, ‘교육 30년’, ‘레지던시 30년’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미술관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잊혀져 가는 광주화단의 기억을 보강하기 위해 역대 관장 8인과 인터뷰 ‘미술관의 기억’을 자료집에 실었



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역대 관장은 강연균, 최영훈, 오경탁, 이태길, 박지득, 황영성, 조진호, 전승보다.

이번 책자는 비매품이며 국공립미술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 2층 자료실에서도 관람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화순 고인돌 유적지·운주사에 담긴 설화는?

정인서 서구문화원장, ‘화순의 수호신 마고할미’ 출간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오래된 설화가 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설화는 여러 이야기가 보태지거나 전승과정에서 확장되기도 한다.

그 가운데 마고할미 설화는 단군이 거느리는 박달죽과 관련이 있으며 박달공주 이야기에 등장한다. 평양성의 구빈마을을 비롯해 지리산, 거제도, 삼척 서구암, 제주도 등 곳곳에 등장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이 최근 우리나라 창조신화의 한 갈래인 마고할미를 모티브로 창작설화집을 발간했다.

모두 12편으로 이루어진 ‘화순의 수호신 마고할미’ (사진)는 화순 고인돌유적지 유적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바위와 마고할미폭포, 운주사의 천불전당과 와불 등 설화와 관련된 장소들을 주제로 펼쳐진다. 기존 설화에 새로운 창작 이야기를 덧붙인 게 특징이다. 여기서 할미는 할머니가 아니라 ‘한+어미’라는 뜻으로 대모(大母)



와 같은 권위를 갖고 찬양을 받는 존재이다. 정 원장은 “전국의 마고할미 설화를 수집해 정리하고 등장인물과 장소, 이야기의 주제를 선정한 후 인공지능 ChatGPT와 bing 채팅을 활용해 창의적인 판타지를 높였다. 설화

집의 표지와 본문의 그림 역시 인공지능 DALL·E 2 등을 이용해 설화 내용에 맞는 장소와 인물, 내용 등을 명명해 어울리는 37장의 그림들을 선택했다”며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활용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도구적인 개념으로 잘 사용한다면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공연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박물관서 만나는 뮤지컬과 마술쇼

국립광주박물관, 10월까지 토요일 어린이 공연

‘신데렐라’, ‘신기하고 달콤한, 맛있는 마술쇼’.

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과 마술쇼가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2023년 토요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첫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공연은 어렵지 않은 스토리에 프로 배우들의 안무와 직접 부르는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 효과가 함께 어우러져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5월 27일에는 에듀매직쇼 ‘신기하고 달콤한, 맛있는 마술쇼’가 예정돼 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선아트와 매개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마술쇼와 포토타임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애령 국립박물관장은 “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정을 맞췄다”며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